

『노인과 바다』 작품은 신학적이 아니다. (관점의 토론 Abstract 및 주장)

“나는 진짜 노인과 진짜 소년, 진짜 바다, 그리고 진짜 물고기와 진짜 상어들을 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들을 충실히 제대로 그려냈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의미할 것이다” -헤밍웨이, <타임> 인터뷰, 1954

“바다는 바다일 뿐이다. 노인은 노인일 뿐이다. 소년은 소년일 뿐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다.
상어는 상어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상징은 허접스레기 같은 것이다”
-역사가 버나드 바렌슨에게 헤밍웨이가 쓴 편지

■ 핵심요약 (인간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희망으로 삼을 만한 2가지)

‘노인이 청새치라는 어려운 목표를 잡고자(극복하고자)하는 과정 속에서, 노인이 보여준 ‘두 가지 모습’

① ‘인간의 불굴의 의지’ (역경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 청새치와의 싸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노인)
 - ‘디마지오’ 선수 (노인이 사랑하는 야구선수)
- (발꿈치 부상이라는 역경을 딛고도, 끝내 버티고 이겨내는 선수)

② Together(relationship)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 소년 (노인의 세계관과 비슷한)
 - 사자 (어린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 야구 (Team-play sports)
- <*** 노인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순간마다 떠올리는 대상들이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어쩌면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역경을 맞이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 당신이 그 역경 앞에서 ‘어떤 고통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놀라운 의지’를 기억하고, ‘타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요약설명

[1] <노인과 바다>는 무엇을 중심으로 다루는가? ‘노인이 청새치’를 잡는 스토리이다.

‘청새치’는 노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놓치지 않으려 했던 하나의 목표와 같았다. 청새치를 잡으려 면 노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내해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끝까지 추구하고자 했던(잡고자 했던) 어떤 ‘목표, 이상향, 욕망’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노인은 ‘극기주의’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정신)를 보여줬다.

또한 노인은 ‘홀로 감내하기 힘든 순간마다’ 계속 ‘소년과 야구 그리고 사자’를 떠올리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Together 함께’라는 점이다. 노인의 세계관(젊은 어부들과는 다른,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연민을 가진)을 이해하는 소년, 그리고 자신의 강한 힘으로 홀로 살아갈 수도 있을 법한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의 이미지가 아닌, 어린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꿈, 그리고 혼자 잘 나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팀플레이 스포츠인 야구’를 생각해본다면, ‘노인은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소년의 청을 거절하고 홀로 바다에 나갔다가, 청새치를 잡으며 끊임없이 소년을 떠올린 노인, 청새치를 잡고 마을로 돌아와 소년에게 ‘지금부터라도 소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노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 의미의 확장 (작가의 삶을 통해 더불어 함께 생각해보는)

노인이 힘든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잡으려했던 청새치. 이 청새치를 무엇이 비유할 수 있을까?

헤밍웨이의 청새치는 무엇일까. 헤밍웨이가 자신의 온 생애 걸쳐 싸워왔던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① 전쟁과의 싸움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의 허무)
- ② 파시즘과의 싸움 (스페인에서)
- ③ 불평등과 부조리,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고통

④ (작품 속 노인의 세계관) 자본주의와의 싸움 (돈이 중심인 세상, 인간/자연 소외의 세상)

[2-1 부연설명] 헤밍웨이는 전쟁 속 인간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목도하면서, 전쟁을 막기 위해 수많은 글을 써왔다. 18세부터 기자로서 전쟁의 폭력성을 세상에 알리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희망하는 기고문들을 약 30년 넘게 써왔다. 헤밍웨이가 참전 및 보도를 위해 직접 경험한 전쟁을 살펴보면, <제 1차 세계대전 경험 - 그리스티키전쟁 보도 - 스페인 내전 보도(파시즘과의 싸움) - 2차 세계대전 보도 - 중일대립 보도 - 노르망디상륙작전 보도 등이 있다>

(참고) 20대부터 40대까지 오랜 기간 끝없는 전쟁을 경험했던 헤밍웨이. 그의 작품 역시 '전쟁'을 경험하고 쓰게 된 경우가 많았다. ① <무기여 잘 있거라>는 제 1차 세계대전 경험, 그리스-터키전쟁 보도 하면서 목격한 피난민 행렬 등의 영향을 받았다. ② <우리를 시대에>는 제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귀향 후 적응에 힘들어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다. ③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투우'를 소설의 소재로 사용했는데, 그가 투우에 끌린 이유를 두고, '전쟁이 끝나 더 이상한 무참한 죽음을 통한 삶과 죽음을 목격할 장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④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즉 전쟁은 그의 삶에서, 그가 오랜 기간 싸워온 중심이 되는 화두'라고 할 수 있다.

[3] <노인과 바다>의 마무리와 의미의 확장

; 청새치는 노인이 자신만의 이상향을 위해, 추구하고자 했던 노인의 목표이자 몫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상어(방해자들)에 의해 빼앗겼지만, 빼는 남았다. '빼'는 노인이 '거대한 청새치라는 어려운 역경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즉, 노인의 노력과 정신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본질은 남아있는 것이다.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청새치로 대표되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욕망, 이상향'을 향한 몫을 다했다. 노인이 자신의 몫을 다했듯, 청새치의 빼는 우리에게도 '우리 저마다의 object(목표, 욕망, 이상향 등)를 향한 남은 몫'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기자로써 전쟁을 막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자 '글을 통해 싸워왔던' 헤밍웨이. 노인에게는 청새치와의 싸움이었지만, 헤밍웨이는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즉, 전쟁과의 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해본다.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해왔던 헤밍웨이는 '자신만의 몫'으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청새치(전쟁)와 싸워왔지만,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의 노력은, 상어들(방해자)의 노력으로 완전히 달성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헤밍웨이가 삶으로써 보여준 정신(청새치와의 싸움/전쟁과의 싸움)은 소설 속의 '빼'처럼, 후대인 우리(소년)에게 살아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추가] 노인의 세계관 (헤밍웨이는 노인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 노인의 세계관(젊은 어부들과는 다른)
 - (노인이 어부질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이상향은 무엇인가)
 - Together(함께 살아가는 존재에 대한 애정 friendly '바다, 바다 속 생명체, 해달별 등)
 - 어쩔 수 없는 어부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체를 먹고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은 광합성을 해서 홀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어부로서 낚시는 하지만, '잡은 물고기에게 마저도 연민을 느끼는. 청새치를 잡으면서 pity, desperate한 감정까지 느끼는 노인에게 어부질은 딜레마와 같은 숙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상어를 향한 공격.
 - a. 청새치라는 자신의 목표(혹은 이상향)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
 - b.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 아닌, 남의 결과물을 뺏는 행동을 향한 응징